

목 차

서울시 지역 일자리사업 DB  
구축 및 평가

제1장 서 론 ..... 1

제2장 지역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 4

제3장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현황 및 활용실적 ..... 12

제4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과제 ..... 49

다산경제연구원

## 제1장 서론

### 1. 서울시의 고용정책 배경

서울지역은 인구와 경제규모면에서 14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2위, 금융회사, 대기업 본사, 외국회사의 입지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면에서는 국내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큰 전자산업, 중공업, 자동차업, 석유화학의 기반이 전무하고 대신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편중되어 있다. 2000년 이후 수출기반의 제조업이 국내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서울의 GRDP 성장률과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악화된 수준이다.

이러한 고용악화는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서울은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제조업을 유치할 산업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서울은 산업전략을 통한 고용활성화보다는 노동시장의 내재적 결합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을 타 시도보다 먼저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타 시도에 앞서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예산자급률이 거의 100%정도로 재정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들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고용정책을 보면 타 시도에 없지만 연간 140억의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전문학교를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연간 280억의 예산을 들여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창업을 고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청년창업 지원에 연간 200억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전형적인 고용정책이외에도 청년창업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고용사업을 타 시도에 앞서서 실시하였다.

### 2. 시기별 서울시 고용정책 방향

서울시의 고용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이러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고용정책을 자체예산을 들여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혹은 위임사무의 일자리사업을 단순히 수행하거나,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수정하고 보강하여 별도의 서울형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첫째의 예를 보면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도 관련법규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을 서울시가 매칭예산을 추가하여 각 부처의 지침대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업은 제3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침대로 시행할 뿐 아니라 전문직 경력의 노인을 위해 서울형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모방하여 서울형 고령자기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서울시는 기존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혹은 지역공동체 사업보다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될 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지향형 일자리와 민간협력 일자리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예산이 지원되는 일정기간만 수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수동적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개인 혹은 팀이 창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이 공공근로 예산은 장기적으로 줄이면서 시장지향형 일자리와 민간협력 일자리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과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청년창업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정보 혹은 취업의욕이 부족하여 민간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거나 기피하는 취약계층에게 일하기는 편하지만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타 시도에 앞서 설치하였다.

### 3. 2011년 서울시 고용정책 현황

#### 1) 중앙정부와 연계된 일자리사업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사업은 10개 부처(청 포함) 총 37개이다. 이 가운데 서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7개 부처(청 포함) 22개 사업이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중앙정부 연계 일자리사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주로 복지, 보건,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이들 사업을 위해 총 64,71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총 96,424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연계 일자리사업의 총예산은 161,136백만원이었다..

사업 수에서 가장 많은 부처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소방문사업, 요보호 아동 그룹홈보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돌봄이,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

과 같이 10개 사업이고 전체 서울의 중앙정부연계 일자리 22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음 여성부 일자리 사업이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 아이돌봄이,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장애인사회참여, 경력단절여성취업과 같이 5개 사업으로 그다음으로 많다. 그 외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사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가 있다. 또한 산림청의 산림서비스증진,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가 있다.

## 2)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않는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2011년 서울자체 일자리사업을 정책별로 살펴보면, 창업지원 5건, 고용지원서비스 8건, 훈련 3건, 고용보조금 4건, 그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창출 53건이 있다. 특별히 서울시는 창업과 고용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청년과 여성의 창업지원, 고령자, 여성, 장애인 대상의 고용서비스와 같이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대상별로 보면 청년 15개, 고령자 4개, 장애인 3개, 여성 10개, 취약계층(저소득자, 노숙인) 5개가 있고 이외에 전문기능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8개 있다. 청년대상 사업은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여성역시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반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창업을 하거나 기능직과 사무직에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조금과 창업지원은 없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서비스만이 있다.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2011년 서울자체 일자리사업 가운데 예산은 총 270,316백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예산이 큰 사업을 보면 청년창업 191억, 시립직업전문학교 190억, 중소기업인턴쉽 96억, 보육도우미 63억, 서울재가관리사업 40억, 노숙인일자리사업 57억, 자활근로사업 545억, 공공근로 210억, 지역공동체사업 316억, 학교보안관 143억, 지역형사회적기업 83억, 여성발전센터 169억과 같이 12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의 예산합계는 2,103억으로 전체예산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 제2장. 지역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 제1절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시장은 큰 변화없이 소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도 2009년 전년도 경제위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소폭 악화되었지만 곧 회복되었다.

먼저 인구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8,015천명에서 8,304천명으로 3.6% 증가하였고, 동 기간 경제활동인구는 4,917천명에서 5,108천명으로 3.9%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3년과 2009년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감소하였다.

동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대 말 경제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0년 61.3%, 또한 2008년 국제금융 이후 영향이 남아 있던 2009년 60.8%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2004년~2006년 참여정부 말미에는 63%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63% 사이에 있었고 전국 평균보다 0.5%p~1%p 높았다.

동 기간 취업자는 4,668천명에서 4,936천명으로 5.7%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2003년과 2009년 감소하였다. 동 기간 고용률은 58.3%~60.3% 사이에 있었고 2000년과 2009년 각각 58.2%와 58.1%로 가장 낮았으며, 고용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였다.

동 기간 실업률은 2000년 5.1%로 가장 높고, 2008년 3.9%로 가장 낮은 반면 평균적으로 4.5% 내외였다. 또한 전국 평균 실업률에 비해 0.7% 포인트에서 1% 포인트 높았는데, 서울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의 하나로 실업률이 높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표 2-1> 서울시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15세이상인구	8,015	8,042	8,038	8,027	8,039	8,115	8,161	8,187	8,258	8,322	8,384
	경제활동인구	4,917	4,965	4,999	4,981	5,068	5,135	5,138	5,148	5,122	5,064	5,180
	취업자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4,936
	실업자	250	237	216	228	237	246	232	207	201	228	244
	비경제활동인구	3,097	3,078	3,039	3,046	2,971	2,980	3,023	3,040	3,136	3,259	3,205
	경제활동참가율(%)	61.3	61.7	62.2	62.1	63.0	63.3	63.0	62.9	62.0	60.8	61.8
	실업률(%)	5.1	4.8	4.3	4.6	4.7	4.8	4.5	4.0	3.9	4.5	4.7
	고용률(%)	58.2	58.8	59.5	59.2	60.1	60.3	60.1	60.3	59.6	58.1	58.9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8	61.0
	실업률(%)	4.4	4.0	3.3	3.6	3.7	3.7	3.5	3.2	3.2	3.6	3.7
	고용률(%)	58.5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5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2절 서울시 실업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남성의 실업률은 여성에 비해 1% 포인트에서 1.5% 포인트 정도 높았다. 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원인은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구인수요가 많으며, 여성들은 고용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탐색하기보다는 취업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하강기인 2009년을 보면 남성실업률은 전년 4.3%에서 5.2%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여성 실업률은 3.3%에서 3.5%만으로 증가해 여성의 경제활동 진폭이 보다 안정적이다.

동기간 청년층(19~29세)의 실업률은 최저 7.5%에서 최고 9.0%로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30~59세의 연령계층의 경우 3.0%에서 3.9%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표 2-2> 서울시 실업률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5.1	4.8	4.3	4.6	4.7	4.8	4.5	4.0	3.9	4.5	4.7
남성	5.7	5.2	4.9	4.8	5.0	4.9	4.8	4.6	4.3	5.2	5.4
여성	4.2	4.1	3.6	4.3	4.3	4.6	4.1	3.3	3.3	3.5	3.8
15-29세	8.1	8.4	8.3	8.8	9.0	9.0	8.8	7.5	7.7	8.2	8.4
30-59세	3.9	3.5	3.0	3.2	3.4	3.6	3.3	3.2	3.0	3.7	3.7
60세 이상	2.8	1.9	2.3	1.9	2.0	2.1	2.5	1.6	1.7	2.2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3절 서울시 계층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 가. 서울시 계층별 경제활동인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908천명에서 2,971천명으로 2.1% 증가한 반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9천명에서 2,208천명으로 9.9%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더 높았다.

동 기간 15~19세 경제활동인구는 동 연령층 감소 때문에 117천명에서 49천명으로 현격히 감소하였고, 20~29세 경제활동인구는 대학진학률의 증가 때문에 1,291천명에서 983천명으로 23.8%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30~39세 역시 1,366천명에서 1,326천명으로 2.9% 감소하였다. 이처럼 젊은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대학생 증가, 대학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 기간 49~49세 경제활동인구는 1,187천명에서 1,361천명으로 14.6%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50~59세 경제활동인구는 675천명에서 996천명으로 47.5%로 크게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81천명에서 464천명으로 65.1%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별히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50세 이후의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동 기간 초졸, 중졸, 고졸 경제활동인구는 454천명, 658천명, 2,226천명에서 각각 314천명, 428천명, 2,037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대졸 경제활동인구는 1,579천명에서 2,401천명으로 52.0%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대졸 경제활동인구가 고졸을 상회하였으며 그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

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표 2-3> 계층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성별	4,917	4,965	4,999	4,981	5,068	5,135	5,138	5,148	5,122	5,064	5,180
남성	2,908	2,916	2,947	2,921	2,937	2,969	2,958	2,969	2,955	2,932	2,971
여성	2,009	2,049	2,052	2,060	2,131	2,167	2,180	2,179	2,167	2,132	2,208
연령별	4,917	4,965	4,999	4,981	5,068	5,135	5,138	5,148	5,122	5,064	5,180
15-19세	117	105	79	72	70	68	58	59	54	44	49
20-29세	1,291	1,265	1,235	1,209	1,193	1,167	1,108	1,079	1,047	1,009	983
30-39세	1,366	1,375	1,390	1,402	1,409	1,406	1,395	1,367	1,357	1,324	1,326
40-49세	1,187	1,222	1,252	1,283	1,320	1,339	1,362	1,369	1,377	1,353	1,361
50-59세	675	679	692	698	732	787	817	848	880	911	996
60세 이상	281	320	350	317	344	368	398	426	407	423	464
학력별	4,917	4,965	4,999	4,981	5,068	5,135	5,138	5,148	5,122	5,064	5,180
초졸 이하	454	441	423	371	382	389	367	362	346	304	314
중졸	658	632	626	527	525	513	512	465	426	399	428
고졸	2,226	2,237	2,250	2,125	2,161	2,179	2,117	2,105	2,077	1,973	2,037
대졸 이상	1,579	1,655	1,699	1,959	1,999	2,055	2,142	2,215	2,274	2,388	2,401
전문대졸	361	397	419	434	477	509	534	582	564	583	599
대학교졸 이상	1,218	1,259	1,280	1,525	1,522	1,546	1,608	1,633	1,710	1,804	1,8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나. 서울시 계층별 취업자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남성 취업자는 2,743천명에서 2,811천명으로 2.4%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1,924천명에서 2,125천명으로 10.4%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동 기간 15~19세 취업자는 동 연령층 감소 때문에 100천명에서 495명으로 현격히 감소하였고, 20~29세 취업자는 대학진학률의 증가 때문에 1,194천명에서 900천명으로 24.6% 감소하였다. 가장 큰 취업자를 차지하는 30~39세 역시 1,310천명에서 1,257천명으로 4.0% 감소하였다. 이처럼 젊은 취업자는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대학생 증가, 대학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 기간 49~59세 취업자는 1,144천명에서 1,322천명으로 15.5% 증가하여 연령별로 볼 때 가장 큰 취업자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50~59세 취업자는 646천명에

서 967천명으로 49.7%로 크게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273천명에서 444천명으로 62.6%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별히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50세 이후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 초졸, 중졸, 고졸 취업자는 432천명, 624천명, 2,096천명에서 각각 298천명, 405천명, 1,932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대졸 취업자는 1,516천명에서 2,300천명으로 51.7%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대졸 취업자가 고졸을 상회하였으며, 그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표 2-4> 계층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성별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4,936
남성	2,743	2,764	2,804	2,781	2,792	2,822	2,815	2,834	2,827	2,779	2,811
여성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2,125
연령별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4,936
15-19세	100	88	69	64	60	58	53	55	51	41	45
20-29세	1,194	1,167	1,137	1,104	1,089	1,066	1,010	998	966	926	900
30-39세	1,310	1,322	1,336	1,346	1,354	1,346	1,339	1,312	1,304	1,259	1,257
40-49세	1,144	1,182	1,226	1,252	1,283	1,297	1,320	1,333	1,340	1,313	1,322
50-59세	646	655	673	676	708	761	797	824	861	884	967
60세 이상	273	313	342	311	337	361	388	419	400	413	444
학력별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4,936
초졸 이하	432	424	410	360	369	373	353	349	335	294	298
중졸	624	601	600	508	500	491	491	451	408	379	405
고졸	2,096	2,112	2,144	2,014	2,035	2,052	2,010	2,012	1,980	1,866	1,932
대졸 이상	1,516	1,590	1,629	1,872	1,926	1,974	2,052	2,128	2,199	2,296	2,300
전문대졸	339	373	395	405	452	477	505	547	537	555	561
대학교졸 이상	1,177	1,216	1,234	1,466	1,474	1,497	1,547	1,581	1,662	1,742	1,7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4절 서울시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 가.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광업 및 제조업 취업자는 894천명에서 532천명으로 45.9% 감소하였다. 서울시 준공업 지역의 감소, 지가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이 서울을 떠났을 뿐 아니라 도심 대표업종인 의류봉제업의 경우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의 취업자는 2000년 350천명에서 2007년 42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지하철, 도로와 같은 도시 인프라 건설의 감소, 재건축 규제강화 등으로 건설업이 부진하자 취업자는 2010년 374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음식업의 경우 취업자는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입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골목길 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2000년 1,513명에서 2010년 1,340명으로 11.4% 감소하였다.

반면 전기, 운수, 창고, 금융 업종의 취업자는 519천명에서 790천명으로 52.2% 증가하였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381천명에서 1,894천명으로 37.1% 증가하였다. 특별히 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업별 취업자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4,936
농림어업	10	9	10	6	5	5	7	6	4	4	6
광업 및 제조업	894	870	838	786	803	792	753	697	606	516	532
건설업	350	364	386	406	413	418	419	425	422	361	374
도소매음식숙박업	1,513	1,468	1,471	1,466	1,435	1,425	1,417	1,359	1,368	1,352	1,340
전기운수창고금융	519	528	515	515	523	523	525	544	749	753	7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381	1,488	1,563	1,573	1,653	1,727	1,784	1,909	1,772	1,848	1,894

자료: 서울통계

##### 나.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관리자는 160천명에서 175천명으로 9.3% 증가하였다. 동 기간 전문가 및 관련종사 취업자는 1,041천명에서 1,251천명으로 2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의 산업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된다. 사무종사자는 816천명에서 865천명으로 6.0% 증가한 반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 587천명과 782천명에서 각각 549천명과 701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음식도소매 업종의 취업자 감소와 연관된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와 연관된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는 606천명에서 467천명으로 22.9% 감소하였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는 587천명에서 614천명으로 4.6% 증가하였다.

<표 2-6>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업별 취업자	4,890	4,906	4,940	4,922	4,835	4,936
관리자	160	148	149	133	156	1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41	1,109	1,189	1,280	1,278	1,251
사무종사자	816	810	818	808	843	865
서비스종사자	587	606	569	590	553	549
판매종사자	782	743	733	711	723	701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	6	6	5	5	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06	569	553	504	423	467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8	316	309	319	302	306
단순노무종사자	587	600	614	572	552	614

자료: 서울통계

### 제3장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현황 및 활용실적

#### 제1절 사업현황 및 주요 특징

##### 가. 중앙부처와 연계형 사업

###### 1) 부처별 일자리사업 현황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사업은 10개 부처(청 포함) 총 37개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7개 부처(청 포함) 22개 사업이다. 농림수산부 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상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과 같이 특정분야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중앙정부 연계 일자리사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주로 복지, 보건, 교육 분야이다. 중앙정부의 각부처는 이들 사업을 위해 총 64,71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총 96,424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연계 일자리사업의 총예산은 161,136백만원이었다.

사업 수에서 가장 많은 부처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소방문사업, 요보호 아동 그룹홈보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돌봄이,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같이 10개 사업이고 전체 서울의 중앙정부연계 일자리 22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음 여성부 일자리 사업이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 아이돌봄이,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장애인사회참여, 경력단절여성취업과 같이 5개 사업으로 그다음으로 많다. 그 외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사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가 있다. 또한 산림청의 산림서비스증진,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가 있다.

###### 2) 부처별·일자리사업별 예산

2011년 시비와 국비를 합친 총 사업비 기준으로 큰 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32,748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685백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10,762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0,672백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 사업의 총액은 67,867백만원으로 총 예산 161,136백만원의 42.1%이다. 이 모두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의 개수뿐 아니라 예산면에서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예산을 받지 않고 시비로

28,65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서울시 예산 96,424백만원의 29.7%, 총 일자리사업 예산의 161,136백만원의 17.8%가 될 정도로 큰 사업이다.

그외 총사업비가 큰 사업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성화 3,187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사 5,064백만원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2,645백만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 사업이외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소방문사업 4,865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2,180백만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3,239백만원, 가사간병도우미 1,160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3,340백만원, 장애인일자리 4,796백만원이 추가로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 5,768백만원, 아이돌봄이 6,628백만원, 경력단절여성취업 4,226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5,928백만원이 있다. 또한 산림청의 숲가꾸기 1,770백만원, 문화재청의 문화재종합관리체계구축 2,832백만원이 있다.

### 3) 부처별 일자리예산

이를 주요 부처별 사업으로 요약해서 보면 보건복지부 연계사업은 10개 사업에 총예산 87,447백만원으로 총예산 161,136백만원의 54.2%이다. 이를 비추어보면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많은 부분이 복지사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연계사업은 5개 사업이고 예산은 22,84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4.2%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계사업은 2개 사업이고 예산은 7,70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4.5%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 28,656백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6,502백만원 총 35,158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이는 총예산의 26.8%이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여성가족부 연계사업, 서울시 전액투자사업 등이 중앙정부 연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4) 주요 일자리사업의 운영절차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2011년 사업비는 32,748백만원으로 전년 30,180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시비지원은 17,822백만원이고, 국비지원은 14,926백만원이다. 2011년 지원인원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48,925명으로 추정되며, 중앙정부 교부금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및 지침을 만들고,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2011년 사업비는 28,656백만원으로 2010년 20,859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국비지원 없이 시비지원으로 집행되었다. 이 사업의 2011년 지

원인원은 전년대비 37.4% 증가한 2,097명으로 추정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의 2011년 사업비는 13,985백만원으로 2011년 11,847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였고, 시비지원 금액 4,840백만원과 국비지원금액 8,845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 지원인원은 2,138명으로 전년 18,51명에 비해 15.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예산 및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사업비는 10,76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그 중 시비지원 금액은 5,384백만원이고 국비지원 금액은 5,378백만원이다. 2011년 이 사업의 지원인원은 1,193명으로 전년에 비해 9.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돌봄서비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및 지침을 만들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2011년 사업비는 10,672백만원이고, 시비지원 3927백만원, 국비지원 6,745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2011년 지원인원은 1719명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0년 대비 일자리 지원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중앙부처 연계형 사업은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 1,092명에서 2011년 111.4%증가한 2,308명으로 증가하였다.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2011년 사업비 역시 6,628백만원으로 전년 3,136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 국비지원금액이 전년대비 113.8%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표 3-1> 중앙정부 교부금 사업 현황

(단위: 몇, 백만원)

사업명	관련부처명	지원인원		지원금액		국비지원 금액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광역	광역		
자원봉사활성화지원(자원봉사코디데이터지원사업)자원봉사센터간파트너십 구축	행정안전부	370	433	2,195	2,306	623	992
정보화마을조성(경상)	행정안전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774	476	5,692	2,532	2,532	2,532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 (방문보건사업활성화)	보건복지부	456	472	1,566	1,622	3,132	3,243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보건복지부	261	277	1,230	1,308	820	872
정신보건센터운영(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	보건복지부	478	496	6,269	6,502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455	455	2,267	2,267	972	97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정상 보조	보건복지부	1,851	2,138	4,293	4,840	7,554	8,845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순수인건비반)	여성가족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45	319	1,626	2,241	404	404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도농교류활성화(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농림수산식품부						
가시간평방문도우미사업	보건복지부	220	148	393	387	1,335	773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여성가족부	398	604	1,900	2,884	1,900	2,884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1,490	1,719	3,284	3,927	5,967	6,74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보건복지부	580	506	1,101	1,093	2,728	2,247
아이돌보미지원사업(보조)	여성가족부	1,092	2,308	1,719	3,599	1,417	3,029
장애아동재활치료(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1,316	1,193	5,934	5,384	5,934	5,378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사회적기업육성	고용노동부	1,526	2,097	20,859	28,656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여성가족부	131	129	2,984	2,521	3,086	3,407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장애인채용 등)	여성가족부	15	15	143	150	160	149
산림서비스증진	산림청	24	17	45	36	203	142
산불방지대책(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253	187	303	211	437	337
숲가꾸기	산림청	1,069	180	2,924	885	7,590	885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배치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일자리아동지원(노인일자리확대)	보건복지부	45,089	48,925	16,325	17,822	13,855	14,926
노인일자리아동지원(제주-광복회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아동(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보건복지부	4,034	6,388	1,631	2,371	1,398	2,425
문화재종합관리체계구축(문화재특별관리, 문화재경비인력배치)	문화재청	323	318	2,071	2,163	208	219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운영)	여성가족부	6,060	5,086	1,267	1,588	3,766	2,636
농어촌지역 실업자취업훈련(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농특회계)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광복회계)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제주-광복회계)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통일부	263	262	40	32	665	670

## 나.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지자체 사업

### 1.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2011년 서울사업 현황

#### 1) 정책수단별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2011년 서울자체 일자리사업 가운데 예산이 1억을 넘는 사업을 만들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일자리사업 현황을 정책별로 살펴보면, 창업지원 5건, 고용지원서비스 8건, 훈련 3건, 고용보조금 4건, 그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53건이 있다.

창업지원은 정책대상 혹은 산업분야별로 육성하며 구체적으로 청년창업, 40~50대 창업,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 및 교육, 문화예술, 스마트폰 앱개발이 있다. 이 가운데 청년창업의 지원인원과 예산은 2011년 기준 약 2,100명, 191억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고용지원서비스를 보면 본청에 설치된 종합지원기구인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접근성을 고려해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정보센터, 그리고 정책대상별로 자치구 혹은 지역에 있는 해당 복지시설에 설치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장애인취업알선센터, 여성발전센터가 있다. 이외에 여성일자리박람회와 장애인취업박람회, 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리쿠르트투어가 있다. 여성발전센터의 예산 169억은 고용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여성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직업훈련의 경우, 시립직업전문학교, 문화컨텐츠교육,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이 있고 이외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안에서 실시되는 간략한 직업교육이 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이 약 190억으로 가장 큰 사업이다.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턴십, 무역서포트, 청소년진로제공사업, 서울형 주부인턴십이 있고 중소기업 인턴십의 예산이 96억으로 가장 크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매우 많지만 주요 큰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활근로사업 545억, 지역공동체사업 316억, 공공근로 210억을 들 수 있다. 이외에 학교보안관 141억, 국악예술강사 25억, 왕궁수문장교대 20억, 관광안내원 37억, 노숙인자활 25억, 중학교전문상담심리사 30억 등이 있다. 하지만 노숙인자활을 제외하고는 학교안전, 학교예술교육, 관광문화프로그램을 위해서 항상 필요한 사업인데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하는 아리수품질서비스, 민간계량기교체서비스, 누수탐지간제근로사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서울시 주무부서별로 보면 복지, 문화관광, 교육에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2) 정책대상별 사업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사업을 보면 청년 15개, 고령자 4개, 장애인 3개, 여성 10개, 취약계층(저소득자, 노숙인) 5개가 있고 이외에 전문기능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8개 있다. 청년대상 사업은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여성역시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반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창업을 하거나 기능직과 사무직에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조금과 창업지원은 없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서비스만이 있다.

3) 예산별 비중이 큰 사업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2011년 서울자체 일자리사업 가운데 예산은 총 270,316백만에 달한다. 청년창업 191억, 시립직업전문학교 190억, 중소기업인턴십 96억, 보육도우미 63억, 서울재가관리사업 40억, 노숙인일자리사업 57억, 자활근로사업 545억, 공공근로 210억, 지역공동체사업 316억, 학교보안관 143억, 지역형사회적기업 83억, 여성발전센터 169억의 12개 사업에 2,103억이 배정되어 전체예산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 지방정부 자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정책수단	정책대상	지원인원		지원 금액	
			2010	2011	2010	2011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창업지원	창업지원	청년층	2,221	2,160	19,676	19,133
4050 중장년층 창업지원 프로젝트	창업지원	중장년층		500		2,000
창업보육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국민일반		7,155		2,770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지원	국민일반	22,086	12,000	1,327	721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고용지원	국민일반	23,294	29,000	1,090	1,357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고용지원	고령자	8,834	7,700	2,695	2,349
장애인취업알선센터	고용지원	장애인		612		582
리쿠루트투어 등	고용지원	청년층	876	2,800	250	799
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	국민일반	4,240	4,400	18,301	18,991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고용보조금	국민일반	1,593	1,600	9,600	9,641
무역서포터즈	고용보조금	청년층	280	260	1,928	1,790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24,973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고용보조금	청년층	97	87	1,008	907
여성일자리맞기지원 프로젝트	일자리창출	여성			2,701	1,157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여성	1,427	1,318	6,860	6,336
서울재가관리사업	일자리창출		251	250	4,049	4,034
노숙인일자리맞기사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561	600	5,357	5,734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6,908	7,608	49,491	54,505
공공시설모니터링 등 사회적일자리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1,300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3,289	3,500	19,807	21,075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2,297	2,600	27,956	31,640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일자리창출	중장년층		912		14,371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일자리창출	청년층	88			1,620
공공기관 인턴제(행정인턴)	일자리창출	청년층		6,048		
실버 전용극장 청춘극장 운영	일자리창출	고령자		16		326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운영	훈련	전문인력	18			121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사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126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여성	27	174	395	2,555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814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3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자리창출	청년층	39	78	649	1,298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청년층	45	45	690	690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27		1,076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행사	일자리창출	청년층	94	71	2,714	2,048
남산풍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일자리창출	청년층		15		727
관광안내소 운영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93	120	2,872	3,693
효자동사랑채 시설관리운영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26		1,600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17	21	448	550
잠실종합운동장 조경관리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22		433
영세봉제업체 인력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여성		95		530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사업	일자리창출	여성		72		550
서울3D 영상인력개발센터 운영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131		370
프로덕션 오피스 운영	일자리창출	청년층		200		800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1,960			8,333
저소득 빈곤층 긴급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저소득자		100		642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	고령자		1,376		818
서울형노인일자리	일자리창출	고령자		807		340
장애인취업박람회		고용지원		300		50
미래형직업재활시설	일자리창출			140		976
노숙인특별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600		2,5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도우미 파견 사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150		650
露(숙인)-露(숙인)케어 사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46		700
식품안전 서포터즈	일자리창출	청년층		83		95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3개소)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10		1,000
교통단속(주정차, 택시승차거부 등)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369	55	1,950	291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지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92		2,090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14	84	134	790
임야 내 태풍 피해목 제거 및 간벌목 활용한 목재가공품 제작 설치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20		362
지리정보기반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일자리창출	청년층		4		548
이관기록물 정리 및 목록 전산화	일자리창출	청년층		10		222
노점·노상적지물 단속 및 정비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27		877
도로재산DB 구축	일자리창출	청년층		7		173
맑은내길, DDP주변 노점 정비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14		1,000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19		116
아리수 품질확인제 특별서비스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70		3,042
만기계량기 교체사업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56		2,514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사업	일자리창출	국민일반		60		1,161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지원	여성		300		1,000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	훈련	여성		9,330		1,800
서울형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고용보조금	여성		380		1,159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지원	여성		150		180
여성발전센터 취업알선	고용지원	여성		22,150		16,900
스마트폰 앱개발자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창업지원	청년층		40		291

## 2. 중앙부처와 연계되지 않은 서울시 주요 일자리사업 사례분석

### 1)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 자료

#### (1) 추진배경

경기가 침체기를 지나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업률이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별히 이러한 고용부진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 미취업 청년층 상당수가 취업경험자로 근무여건, 시간, 보수 등의 불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8년 46%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동기간 7.7%에서 8.1%로 증가하였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이 전무한 현실이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하이서울창업스쿨,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등의 창업 교육과정은 청년층보다 장년층이 선호하는 업종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일정 매출액 또는 담보 능력이 있는 창업자에게만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국가고용대책회의에서 우수한 청년고용사업으로 선정되어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이후 각 광역시도에 전파되었다.

#### (2) 사업 추진경위

사업의 목적은 20~30대 청년층 중 참신한 아이템과 창업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창업에 필요한 창업공간, 창업자금 등의 원스톱 지원으로 청년의 잠재력을 개발 및 성공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전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 5, 6월 강남북 2곳에 창업센터를 개소하였다. 2009년 6월 예비청년창업가 758팀을 선정하고 이들은 7월 바로 입소하였다. 이후 8월 추가로 263개 팀을 선발하여 목표대로 1000개의 창업팀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2011년에도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 ○ 주요추진 경과

- '09.4.24: 기본계획수립
- '09.5~6월: 강북 및 강남청년창업센터 리모델링
- '09.6월중: 제1기 예비청년창업가 선발(758개팀)
- '09.7.1: 강북 및 강남청년창업센터 입주
- '09.7.24: 청년창업센터 개소식
- '09.8.28: 예비청년창업가 추가선발(263개팀)
- '10.3.4: 국가고용대책회의 청년일자리 우수시책사업 발표
  - ※ 행정안전부 주관 '10. 7월부터 전국 15개 시·도·광역시 확대시행
- '10.6.30: 제1기 청년창업가 졸업(856기업)
- '10.4~6월: 제2기 예비청년창업가 선발(1,001개팀)
- '10.7.1: 제2기 예비청년창업가 청년창업센터 입주
- '11.4~6월: 제3기 예비청년창업가 선발(1,001개팀)
- '11.7.1: 제3기 예비청년창업가 청년창업센터 입주

#### (3) 사업예산 및 내용

2011년 사업예산은 약 191억이고 매년 1000개팀을 선발하고 각 팀은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예비청년창업가 선발방법은 20~39세 청년층 중 지식,기술,일반 분야에 걸쳐 독특하고 참신한 창업아이템보유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및 사업화 계획서를 공모한다. 대학교수, 창업관련단체 임원, 성공한 창업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용 및 선발기준 등 결정하고 다음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창업팀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표 3-3> 예비청년창업가 선발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지식	일반	기술	비고 (평균경쟁률)
합계	2,022	973	533	516	
제1기	1,021	522	233	266	3.1 (2차에걸쳐 선발)
제2기	1,001	451	300	250	3.3:1
제3기	1,001	451	300	250	2.9:1

(4)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공간은 강북에 구 마포구청사의 일부인 4동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으며 전체면적은 13,280제곱미터에 해당한다. 여기에 약 500개 청년창업팀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강남에는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에 설치되었으며 면적이 12,313제곱미터에 해당한다. 여기 또한 500개팀이 입주하고 있다.

1인당 10㎡내외의 창업공간이 배정되고 1년간 창업공간 임차료와 관리비는 무상 지원되고 이에 더하여 창업공간 1실당(책장, 의자, 캐비닛 1식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회의실, 고용장비실, 휴게실, 시청각실 등 공용시설이 제공하고, 창업활동성과 평가우수자(매출발생, 추가고용 등)에 한해 1년간 입주를 연장한다.

<표 3-4> 청년창업센터 조성

구 분	강북청년창업센터	강남청년창업센터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75-3 (구. 마포구 청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0 (가든파이브 공구상가)
면적	약13,280㎡(4개동)	약12,313㎡(5층 일부)
수용규모	550기업(입주연장 50기업포함)	500기업
시설현황		
배치시설	청년창업실, 회의실, 고용장비실, 자료실, 제품홍보실, 제품촬영실, 휴게실 등	

○ 창업자금 지원

입주한 청년창업팀에게는 아이টে깁 개발 및 창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발심사 및 정기평가 성적 따라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지원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예비청년기업에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분기별 입주기업의 창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급등급을 조정하고, 성적부진자를 퇴출한다.

<표 3-5> 창업자금 지원

구 분	변 경 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비율	20%	50%	20%	10%
월지금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미지급

○ 창업교육 프로그램

강의형 교육과 참여형 교육,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강의형 교육은 기업가정신, 창업우수사례, 리더쉽 등 창업기초 및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형 교육은 재무, 마케팅, 아이টে깁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세미나, 토론, 실습 형태의 교육이다. 맞춤형 교육은 창업업종별로 단계별로 소수정원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 홍보·마케팅 지원

우수아이템을 선정하여 디자인·시제품개발과 온라인 무역사이트(알리바바닷컴)입점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총람과 우수창업사례집을 제작하여 구매처인 공공기관과 국내외 기업에 배포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그 밖에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디자인올림픽, 소상공 창업박람회, 리빙디자인 페어, 일자리박람회 등), 제품전시 홍보지원(졸업페스티벌개최, 센터내 제품전시관 운영), 언론 홍보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무역,법률 등 10개분야), 센터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한다.

○ 졸업기업의 입주연장 및 판로개척 지원강화

졸업 후에도 개별실(94개 기업), 공동실(106개 기업)의 창업공간 제공하고, 졸업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무·법무 등 일반창업분야(월1회), 창업분야별 특화세미나(월1회), 컨설팅(월 2회이상)을 지원한다. 국내외 오픈마켓·쇼핑몰 입점을 지원할 뿐 아니라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연 4회 개최한다.

2011년 4월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지역에 “꿈꾸는 청년가게”라는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였다. 꿈꾸는 청년가게 매출실적은 153백만원(2011. 4. 7 ~ 2011. 8.31)이며, 온라인상 전시·판매를 위한 전용인터넷쇼핑몰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표3-6> 졸업기업 창업공간 지원

구 분	유형	유형별 면적(㎡)	수량 (실)	수용규모	비 고
합 계			130실		
용산센터 (구.용산구청)	A형	14~20	90실	4인 이내 기업	제1기졸업기업 (150개기업)
	B형	30	20실	5인 이상 또는 2개사 이상 공동	
강북센터 (구. 마포구청)	B형	30	20실	5인 이상 또는 2개사 이상 공동	제2기 졸업기업 (50개기업)

<표 3-7> 졸업기업 지원프로그램

구 분	전시·판매장	비즈니스룸	지원시설	창 고
면 적	90㎡	30㎡	20㎡	20㎡
용 도	· 제품 판매 · 시장 진입전 테스트 공간	· 바이어 상담 · 제품 카타로그 등 비치	판매장 지원 및 졸업기업 관리	제품보관

(5) 추진실적('11. 8월말 현재)

지난 2년간의 청년창업 실적을 보면 제1기 1,021개 기업 가운데 851개 기업이 졸업하였고, 제2기 1,001개 기업 가운데 871개 기업이 졸업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제3기 1,001개 기업 가운데 965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제1기와 2기 청년창업 가운데 1,160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8,349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표 3-8>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실적(2011.8월말 기준)

구 분	사업자 등록	지적재산권	누적 매출액(기업수)	고용인원	
합 계	1,364	1,752	126,484만원(1,177개)	8,957명	
제1기	소 계	605개	893건	81,823백만원(449개)	3,131명
	입주기간	512개	489건	19,056백만원(362개)	2,402명
	졸업 후	93개	404건	62,767백만원(449개)	729명
제2기	소 계	555개	779건	42,781백만원(479개)	5,218명
	입주기간	482개	603건	24,757백만원(483개)	3,029명
	졸업 후	73개	176건	18,024백만원(479개)	2,189명
제 3기	204개	80건	1,880백만원(249개)	608명	

2) 서울시 직업훈련

(1) 현황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지역주민에게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강북권의 상계, 동남권의 서울종합, 도심의 한남, 서남권의 엘림 4곳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훈련인원 및 예산

매년 180억 내외의 예산을 4개 직업전문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3,700명을 정도를 훈련하고 있다. 연간예산의 편차는 주로 장비구입비 혹은 교사개선사업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훈련과정은 주간 1년과정과 야간 6개월과정으로 구분된다.

<표 3-9> 서울시의 직업전문학교 예산 및 훈련인원

(단위: 명)

연도	학교명	훈련 인원	수료 인원	예산 현황
2009	소계	3,707	3,576	17,173백만원
	서울종합	1,089	1,061	
	한남	1,100	1,052	
	상계	1,144	1,102	
	엘림	374	361	
2010	소 계	3,795	3,658	19,444백만원
	서울종합	1,177	1,133	
	한 남	1,100	1,073	
	상 계	1,144	1,100	
	엘 린	374	352	
2011	소 계	3,861		18,991백만원
	서울종합	1,243		
	한 남	1,100		
	상 계	1,144		
	엘 린	374		

※ 2011년은 훈련계획 인원임, 모든 년도는 정규과정(6개월 이상) 인원 기준

(3) 입학인원

○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건축인테리어, 가구, 보일러, 전자계측 등 건축공사와 관련된 업종이 많다. 전체 입학인원은 1,177명으로, 남자 858명(73%), 여자 319명(27%)이다. 연령을 보면 20대 369명, 30대 285명, 40대 296명, 50대 129명이고, 특히 50대는 건축인테리어, 보일러, 전기계측 등에서 많이 혼련받는다.

<표 3-10>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입학인원

(단위: 명)

과정	학과명	입학인원									
		소 계	성별			연령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b>총 계</b>		<b>1177</b>	<b>858</b>	<b>319</b>	<b>27%</b>	<b>98</b>	<b>369</b>	<b>285</b>	<b>296</b>	<b>129</b>	
주간 1년 과정	소계	451	324	127	28%	77	205	81	67	21	
	건축인테리어	44	39	5	11%	3	11	15	11	4	
	건축환경시스템	33	33		0%	3	21	6	3		
	네트워크운영관리	44	29	15	34%		30	9	3	2	
	실내(가구)디자인	44	17	27	61%	6	15	6	11	6	
	의상디자인	44	10	34	77%	10	13	7	11	3	
	전기계측제어	44	43	1	2%	9	21	6	5	3	
	조리	44	22	22	50%	14	14	5	10	1	
	차량정비	44	41	3	7%	3	30	9	2		
	컴퓨터광고디자인	44	24	20	45%	6	20	10	7	1	
	컴퓨터응용기계	33	33		0%	14	16	2	1		
	특수용접	33	33		0%	9	14	6	3	1	
	소계	363	267	96	26%	3	79	107	125	49	
	야간 6월 1기	건축인테리어	44	39	5	11%			11	24	9
		네트워크운영관리	44	36	8	18%	1	10	17	12	4
보일러		33	33		0%		2	9	13	9	
의상디자인		33	7	26	79%	1	9	8	13	2	
전기계측제어		44	44		0%		7	14	14	9	
조리		44	12	32	73%		9	11	19	5	
차량정비		44	43	1	2%	1	22	9	8	4	
컴퓨터광고디자인		44	20	24	55%		15	13	11	5	
특수용접		33	33		0%		5	15	11	2	
소계		363	267	96	26%	18	85	97	104	59	
야간 6월 2기	건축인테리어	44	39	5	11%		3	12	18	11	
	네트워크운영관리	44	36	8	18%	3	12	16	8	5	
	보일러	33	33		0%	1	2	10	16	4	
	의상디자인	33	7	26	79%	6	9	4	4	10	
	전기계측제어	44	44		0%		5	16	11	12	
	조리	44	12	32	73%	2	13	8	16	5	
	차량정비	44	43	1	2%	3	21	14	4	2	
	컴퓨터광고디자인	44	20	24	55%	3	15	8	13	5	
	특수용접	33	33		0%		5	9	14	5	
	소계	363	267	96	26%	18	85	97	104	59	

○ 한남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귀금속공예, 의상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 피부체형관리, 인테리어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다. 전체 입학인원은 1,100명으로, 남자 318명(29%), 여자 785명(71%)이고, 연령을 보면 20대 272명, 30대 295명, 40대 258명, 50대 129명이다.

<표 3-11> 한남직업전문학교의 입학인원

(단위: 명)

과정	학과명	입학인원								
		소 계	성별			연령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b>총 계</b>		<b>1,100</b>	<b>318</b>	<b>782</b>	<b>71%</b>	<b>141</b>	<b>272</b>	<b>295</b>	<b>257</b>	<b>135</b>
주간 1년	소 계	374	125	249	67%	96	109	80	71	18
	귀금속공예	44	19	25	57%	13	20	6	3	2
	멀티미디어	33	18	15	45%	11	11	7	3	1
	미용	44	12	32	73%	14	7	10	12	1
	인테리어디자인	40	26	14	35%	9	13	9	7	2
	조리	44	22	22	50%	11	19	9	5	0
	컴퓨터애니메이션	33	20	13	39%	10	14	6	2	1
	패션디자인	48	7	41	85%	14	13	10	9	2
	피부체형케어	44	0	44	100%	12	5	12	12	3
	한국의상디자인	44	1	43	98%	2	7	11	18	6
소 계	363	97	266	73%	17	82	113	92	59	
야간 상	귀금속공예	44	12	32	73%	1	14	16	8	5
	멀티미디어	33	17	16	48%	2	10	7	8	6
	미용	44	7	37	84%	7	11	9	10	7
	인테리어디자인	33	21	12	36%	1	4	10	12	6
	조리	44	16	28	64%	2	8	17	14	3
	컴퓨터애니메이션	33	12	21	64%	2	8	12	7	4
	패션디자인	44	10	34	77%	1	12	18	7	6
	피부체형케어	44	0	44	100%	0	9	14	17	4
	한국의상디자인	44	2	42	95%	1	6	10	9	18
	소 계	363	96	267	74%	28	81	102	94	58
야간 하	귀금속공예	44	12	32	73%	1	9	13	11	10
	멀티미디어	33	17	16	48%	3	10	9	7	4
	미용	44	4	40	91%	11	10	8	10	5
	인테리어디자인	33	21	12	36%	1	5	9	13	5
	조리	44	20	24	55%	1	9	11	18	5
	컴퓨터애니메이션	33	14	19	58%	3	8	11	6	1
	패션디자인	44	4	40	91%	3	15	9	8	9
	피부체형케어	44	0	44	100%	0	10	18	8	8
	한국의상디자인	44	4	40	91%	1	5	14	13	11

○ 상계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는 가스안전, 공조냉동, 품질비파괴검사 등 우선직종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입학인원은 1,144명으로, 남자 1,044명(94%), 여자 30명(6%)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연령을 보면 10대 196명, 20대 369명, 30대 300명, 40대 188명, 50대 91명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많이 받는다.

<표 3-12>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입학인원

(단위: 명)

과정	학과명	입학인원									
		소 계	성별			연령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b>총 계</b>		<b>1,144</b>	<b>1,044</b>	<b>100</b>	<b>9%</b>	<b>196</b>	<b>369</b>	<b>300</b>	<b>188</b>	<b>91</b>	
주간	소 계	484	454	30	6%	117	227	110	21	9	
	가스안전관리	44	44		0%	9	22	12	1	0	
	공조냉동기계자동화	46	46		0%	5	25	13	1	2	
	그린카정비	44	42	2	5%	11	28	4	1	0	
	디지털광고인쇄	44	36	8	18%	25	9	9	0	1	
	미디어출판디자인	40	26	14	35%	12	13	9	5	1	
	웹프로그래밍	44	38	6	14%	2	34	8	0	0	
	의료전자	44	44		0%	8	19	11	6	0	
	자동차차체수리	44	44		0%	15	21	7	0	1	
	자동차컬러디자인	44	44		0%	12	15	12	3	2	
	전기시스템제어	44	44		0%	6	19	15	2	2	
	품질비파괴검사	46	46		0%	12	22	10	2	0	
	<b>소 계</b>		<b>330</b>	<b>295</b>	<b>35</b>	<b>11%</b>	<b>38</b>	<b>70</b>	<b>96</b>	<b>82</b>	<b>44</b>
야간	가스안전관리	33	33		0%	0	6	14	8	5	
	그린카정비	33	32	1	3%	0	8	13	9	3	
	미디어출판디자인	33	18	15	45%	5	4	10	8	6	
	보일러	33	32	1	3%	1	4	9	13	6	
	웹디자인	33	20	13	39%	1	13	13	6	0	
	자동차차체수리	33	33		0%	12	7	7	5	2	
	자동차컬러디자인	33	32	1	3%	5	14	7	7	0	
	전기내선공사	33	33		0%	0	3	8	9	13	
	전기용접	33	32	1	3%	2	2	10	12	7	
	전자기기	33	30	3	9%	12	9	5	5	2	
	<b>소 계</b>		<b>330</b>	<b>295</b>	<b>35</b>	<b>11%</b>	<b>41</b>	<b>72</b>	<b>94</b>	<b>85</b>	<b>38</b>
	야간	가스안전관리	33	33		0%	0	5	10	13	5
		그린카정비	33	30	3	9%	0	6	13	12	2
미디어출판디자인		33	16	17	52%	4	5	9	5	10	
보일러		33	32	1	3%	0	4	8	15	6	
웹디자인		33	23	10	30%	2	9	10	8	4	
자동차차체수리		33	33		0%	16	8	7	2	0	
자동차컬러디자인		33	32	1	3%	6	11	12	3	1	
전기내선공사		33	32	1	3%	0	12	10	11	0	
전기용접		33	33		0%	2	4	11	10	6	
전자기기		33	31	2	6%	11	8	4	6	4	

(3) 취업인원

○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취업자는 969명으로 전반적인 취업률은 85.5%이다. 주간 1년의 취업률 89.1%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조리, 차량정비, 컴퓨터광고디자인의 취업률이 높다.

<표 3-13>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취업인원

(단위: 명)

	소 계	취업률	성별			연령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b>총계</b>	<b>969</b>	<b>85.5%</b>	<b>708</b>	<b>261</b>	<b>27%</b>	<b>66</b>	<b>320</b>	<b>246</b>	<b>242</b>	<b>95</b>
소 계	384	89.1%	279	105	27%	57	182	76	56	13
건축인테리어	37	88.1%	33	4	11%	1	8	15	11	2
건축환경시스템	28	90.3%	28		0%	1	18	6	3	
네트워크운영관리	35	85.4%	24	11	31%		24	8	2	1
실내(가구)디자인	38	88.4%	16	22	58%	5	15	6	9	3
의상디자인	38	88.4%	10	28	74%	9	13	6	8	2
전기계측제어	35	85.4%	35		0%	7	17	5	4	2
조리	40	93.0%	20	20	50%	13	12	5	9	1
차량정비	41	93.2%	38	3	7%	2	28	9	2	
컴퓨터광고디자인	41	93.2%	24	17	41%	6	20	10	4	1
컴퓨터응용기계	26	86.7%	26		0%	8	15	2	1	
특수용접	25	86.2%	25		0%	5	12	4	3	1
<b>소 계</b>	<b>291</b>	<b>82.2%</b>	<b>210</b>	<b>81</b>	<b>28%</b>		<b>64</b>	<b>88</b>	<b>101</b>	<b>38</b>
건축인테리어	35	79.5%	31	4	11%			11	18	6
네트워크운영관리	31	75.6%	25	6	19%		5	14	8	4
보일러	28	90.3%	28		0%		2	8	12	6
의상디자인	28	84.8%	7	21	75%		9	6	11	2
전기계측제어	33	78.6%	33		0%		4	11	10	8
조리	39	90.7%	12	27	69%		6	11	17	5
차량정비	35	79.5%	34	1	3%		19	8	5	3
컴퓨터광고디자인	33	75.0%	11	22	67%		14	8	9	2
특수용접	29	90.6%	29		0%		5	11	11	2
<b>소 계</b>	<b>294</b>	<b>84.5%</b>	<b>219</b>	<b>75</b>	<b>26%</b>	<b>9</b>	<b>74</b>	<b>82</b>	<b>85</b>	<b>44</b>
건축인테리어	36	83.7%	33	3	8%		3	10	15	8
네트워크운영관리	34	87.2%	27	7	21%		9	14	6	5
보일러	27	87.1%	27		0%		1	9	15	2
의상디자인	27	81.8%	5	22	81%	4	8	4	4	7
전기계측제어	32	78.0%	32		0%		4	12	8	8
조리	35	83.3%	12	23	66%		12	6	12	5
차량정비	39	88.6%	38	1	3%	3	19	12	4	1
컴퓨터광고디자인	38	86.4%	19	19	50%	2	15	8	10	3
특수용접	26	83.9%	26		0%		3	7	11	5

○ 한남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의 취업자는 940명으로 전반적인 취업률은 87.6%이며, 주간 1년의 취업률 93.2%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귀금속공예, 멀티미디어 취업률이 높다.

<표 3-14> 한남직업전문학교의 취업인원

(단위: 명)

	소 계	취업률	성별			연령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940	87.6%	266	674	72%	107	236	255	234	108
소 계	341	93.2%	111	230	67%	80	100	69	75	17
귀금속공예	43	97.7%	16	27	63%	12	18	6	5	2
멀티미디어	30	96.8%	18	12	40%	11	11	4	3	1
미용	34	81.0%	8	26	76%	10	6	8	10	0
인테리어디자인	36	92.3%	22	14	39%	9	10	8	7	2
조리	42	95.5%	21	21	50%	9	18	7	8	0
컴퓨터애니메이션	30	96.8%	18	12	40%	8	15	4	2	1
패션디자인	45	93.8%	8	37	82%	11	13	10	9	2
피부체형케어	42	95.5%	0	42	100%	9	4	13	13	3
한국의상디자인	39	90.7%	0	39	100%	1	5	9	18	6
소 계	287	82.0%	78	209	73%	10	66	95	71	45
귀금속공예	36	83.7%	11	25	69%	1	11	15	5	4
멀티미디어	27	81.8%	16	11	41%	0	9	6	7	5
미용	34	81.0%	4	30	88%	4	9	8	8	5
인테리어디자인	26	81.3%	17	9	35%	1	3	10	7	5
조리	37	88.1%	14	23	62%	1	7	14	13	2
컴퓨터애니메이션	27	87.1%	9	18	67%	2	7	10	5	3
패션디자인	28	66.7%	6	22	79%	1	5	12	6	4
피부체형케어	37	86.0%	0	37	100%	0	9	12	14	2
한국의상디자인	35	83.3%	1	34	97%	0	6	8	6	15
소 계	312	87.4%	77	235	75%	17	70	91	88	46
귀금속공예	37	84.1%	10	27	73%	0	7	12	10	8
멀티미디어	27	81.8%	13	14	52%	2	7	9	7	2
미용	35	83.3%	0	35	100%	8	8	7	10	2
인테리어디자인	28	90.3%	18	10	36%	1	4	7	13	3
조리	39	90.7%	18	21	54%	1	9	10	15	4
컴퓨터애니메이션	28	84.8%	11	17	61%	4	8	9	6	1
패션디자인	38	86.4%	4	34	89%	0	13	9	7	9
피부체형케어	40	90.9%	0	40	100%	0	10	16	7	7
한국의상디자인	40	93.0%	3	37	93%	1	4	12	13	10

○ 상계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취업자는 922명으로 전반적인 취업률은 83.86%이다. 주간 1년의 취업률 88.8%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우선직종인 가스안전관리, 공중냉동, 품질비파괴검사 취업률이 높다. 자동차정비 등 수요생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함에 따라 취업률이 다소 낮다.

<표 3-15>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취업인원

(단위: 명)

	소 계	취업률	성별			연령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922	83.8%	840	82	9%	103	323	265	154	77
소 계	411	88.8%	386	25	6%	78	211	97	17	8
가스안전관리	38	90.5%	38		0%	5	21	11	1	0
공조냉동기계자동 화	42	93.3%	42		0%	3	24	13	1	1
그린카정비	36	83.7%	34	2	6%	5	27	3	1	0
디지털광고인쇄	36	90.0%	29	7	19%	22	7	6	0	1
미디어출판디자인	30	83.3%	18	12	40%	6	12	7	4	1
웹프로그래밍	38	90.5%	34	4	11%	1	30	7	0	0
의료전자	39	90.7%	39		0%	6	18	10	5	0
자동차차체수리	34	87.2%	34		0%	8	19	6	0	1
자동차컬러디자인	38	86.4%	38		0%	9	14	11	2	2
전기시스템제어	38	88.4%	38		0%	4	18	13	1	2
품질비파괴검사	42	91.3%	42		0%	9	21	10	2	0
소 계	249	78.5%	220	29	12%	10	53	87	62	37
가스안전관리	25	80.6%	25		0%	0	4	12	5	4
그린카정비	24	72.7%	23	1	4%	0	4	12	7	1
미디어출판디자인	28	84.8%	16	12	43%	3	3	10	7	5
보일러	31	93.9%	31		0%	1	4	9	12	5
웹디자인	28	87.5%	17	11	39%	0	10	12	6	0
자동차차체수리	17	51.5%	17		0%	2	6	5	2	2
자동차컬러디자인	25	80.6%	24	1	4%	1	13	7	4	0
전기내선공사	27	84.4%	27		0%	0	2	7	6	12
전기용접	25	78.1%	24	1	4%	0	2	8	9	6
전자기기	19	70.4%	16	3	16%	3	5	5	4	2
소 계	262	81.9%	234	28	11%	15	59	81	75	32
가스안전관리	29	90.6%	29		0%	0	5	10	10	4
그린카정비	30	93.8%	27	3	10%	0	6	11	11	2
미디어출판디자인	27	81.8%	13	14	52%	1	3	8	5	10
보일러	31	93.9%	30	1	3%	0	4	8	15	4
웹디자인	27	87.1%	20	7	26%	2	8	8	6	3
자동차차체수리	21	67.7%	21		0%	6	8	6	1	0
자동차컬러디자인	27	87.1%	26	1	4%	4	8	11	3	1
전기내선공사	27	81.8%	26	1	4%	0	9	8	10	0
전기용접	24	72.7%	24		0%	0	4	7	8	5
전자기기	19	61.3%	18	1	5%	2	4	4	6	3



### 3) 서울시 사회적기업

#### (1) 사회적기업 육성 배경

서울시는 기존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창출이 예산지원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일자리에 그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중앙정부 예산 지원없이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0년 이후 매년 3차례 순차적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0년 사회적기업 예산 20,276백만원을 투입하였다.

#### (2)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현황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50~100개 씩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정하여 2011년 9월 현재 377개 지정하였고, 이 가운데 30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곳은 281개이다. 그 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7개와 인증사회적기업 125개가 있다.

<표 3-16> 서울형 사회적기업 (2011.9 기준)

(단위: 개)

서울형	고용노동부		
	예비	지역형 예비	인증
377	51	6	125

<표 3-17> 서울형 사회적기업 연차별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지정	지원	인증
계	377	281	30
2010. 1차	110	57	21
2010. 2차	85	52	6
2010. 3차	57	52	2
2011. 1차	57	54	1
2011. 2차	68	66	

#### (3)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분야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을 업종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95개, 문화교육 59개, 보건보육 56개, 환경 등 36개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크다.

<표 3-18>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단위: 개)

구분	합계	사회·복지	문화교육	보건보육	환경 등
지정기업 수	252	98	60	56	38
포기·탈락 기업 수	6	3	1	-	2
운영기업 수	246	95	59	56	36

#### (4)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2011년 9월 현재 지정된 377개 서울형사회적기업은 5,065명을 고용하였다. 이 가운데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은 281 곳이다. 이들 예산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대상 2,166명을 포함하여 총 3,450명 고용하였다.

<표 3-19> 서울형 사회적기업 현황(2011.9.15 기준)

(단위: 개, 명)

기업 수	지정기업			인건비 지원 중(현 고용인원)				인건비 미지원 기업			
	고용인원			기업 수	고용인원			기업 수	고용인원		
	소계	기존 인원	지정 인원		소계	기존 인원	지정 인원		소계	기존 인원	지정 인원
377	9,031	5,065	3,966	281	3,450	1,334	2,116	96	2,509	1,225	1,284

#### (5) 지원현황

#####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시행 지침(2011. 2. 고용노동부)을 지원근거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인증사회적기업은 3,000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2,000만원 이내이다. 2011년 서울형사회적기업 65

개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24개에게 각각 2,632백만원과 1,06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0>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지원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계		서울형		고용노동부	
	기업수	지원금	기업수	지원금	기업수	지원금
계	193	2,632,520	135	1,567,178	68	1,065,342
2010년	104	1,400,220	70	761,378	44	638,842
2011년	89	1,232,300	65	805,800	24	426,500

○ 경영컨설팅, 용자지원, 공공구매

먼저 2011년 경영컨설팅 예산은 143백만원이고 274기업에게 795회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기업에게 약 10억의 용자와 공공구매 65억 정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3-21>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경영컨설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횟수	예산	비고
계	-	2,071	372,780	
2010년	245	1,276	229,680	
2011년	274	795	143,100	

\* 지원기준 : 180천원/회

<표 3-22>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용자지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2010		2011	
	기업수	지원금	건수	지원금	건수	지원금
계	16	1,625	5	530	11	1,095

<표 3-23>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계	10,663,832	2,010,593	8,653,239
2010년	4,396,264	194,404	4,201,860
2011년	6,267,568	1,816,189	4,451,379

#### 4)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 (1) 사업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비록 고용노동부가 서울전역에 걸쳐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일자리플러스센터를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소하였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령자, 중년여성, 장기실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면담과 전화통화를 통해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적합한 구인처를 소개시켜주는 개인사례관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확립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보다는 구직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업무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취업알선기관으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2) 사업예산 및 운영체계

##### ○ 사업예산 및 운영인원

2010년 예산은 712,234천원이고, 2011년 예산은 516,150천원이다. 운영인력은 전문상담사 22명으로 구성되고 조직은 청년팀, 여성팀, 청장년팀, 창업팀으로 구분된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 각처에 흩어진 일자리지원 조직의 자료를 통합·구축하고자 한다. 즉 서울시 산하기관 72개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으로, 일자리센터 1, 자치구 25, 여성발전센터 20, 고령자취업센터 25, 장애인일자리센터 1개가 있다.

##### ○ 성과목표

일자리 창출(취업알선) 목표는 2011년 10,000명에서 2012년 11,000명('12년)으로, 2012년 11,500명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1:1 맞춤형 토달케어를 지속하며 이를 위해 연간 취업준비교육 30회, 심층상담교육 30회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계층별(청장년, 여성,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 창업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2011. 7월말 실적을 보면 취업준비교육 13회, 심층상담교육 12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사 교육 실시(3회 90명 실시)가 이루어졌다. 이외에 현장방문 구인발굴단을 운영하여 134개 업체를 방문하여 265명의 구인발굴을 하였다.

(3) 추진실적

2009년 9월~2011년 9월 누적 구직자는 49,740명이고 이 가운데 24,742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49.7%이다. 이 취업자는 공공일자리로 인한 취업자를 제외한 것이고 또한 대부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한 실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상별로 볼 때 전체의 24.0%인 11,955명 고령자가 구직에 나섰고 이들 가운데 48.9%인 5,822명이 취업을 하였다. 고령자의 대부분은 운전배달(565명), 경비(3,003명)와 같은 직종에 취업을 하였다. 여성과 청장년 가운데 가장 많이 취업을 한 직종은 경영분야이다. 특별히 여성과 청장년이 각각 7,656명과 4,644명이 경영분야에서 구직활동을 하여 이 가운데 52.4%, 44.1%인 3,969명과 2,052명이 취업을 하였다.

<표 3-2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단위: 명)

	계	여성팀	청장년팀	고령자팀
구직자	49,740	16,922	20,863	11,955
취업자	24,742	9,082	9,808	5,852
취업률	49.7%	53.6%	46.9%	48.9%
일평균 취업자	36	13	15	8
상담사 1명당 취업자 수	1,767	2,270	1,634	1,463

\* 기간 : 2009.1.28 ~ 2011.9.30

<표 3-25> 직종별 취업현황

(단위: 명)

	계		여성팀		청장년팀		고령자팀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계	49,740	24,742	16,922	9,082	20,863	9,808	11,955	5,852
관리직	3,171	1,201	354	204	1,930	684	887	313
경영	12,994	6,321	7,565	3,969	4,644	2,052	785	300
금융	361	136	115	47	149	49	97	40
교육	1,651	781	1,001	513	358	160	292	108
법률	175	86	58	33	83	35	34	18
보건	955	503	582	303	120	60	253	140
사회복지	2,608	1,368	1,540	858	482	267	586	243
문화	3,379	1,956	1,980	1,207	1,268	693	131	56
운전	3,142	1,494	46	25	1,920	904	1,176	565
영업	3,459	1,598	1,100	537	1,929	859	430	202
경비	7,993	4,249	612	328	1,776	918	5,605	3,003
미용	672	305	339	155	262	117	71	33
음식	1,677	859	628	319	498	230	551	310
건설	1,057	491	113	61	644	296	300	134
기계	1,587	819	85	48	1,230	606	272	165
재료	164	64	7	2	124	52	33	10
화학	75	37	23	16	40	16	12	5
섬유	267	168	127	94	91	50	49	24
전기	1,181	548	108	56	981	447	92	45
정보통신	1,664	991	201	138	1,428	846	35	7
식품가공	153	69	56	27	88	37	9	5
환경	1,070	551	260	133	704	368	106	50
농림어업	281	146	22	9	113	62	146	75
군인	4	1	0	0	1	0	3	1

(4) 인적특성별 구직 및 취업현황

고령 남자(60~69세)의 구직자는 7,584명으로 이는 전체 구직자 49,740명의 15.2%이다. 이들 가운데 50.8%인 3,858명이 취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이들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연령의 여성의 취업이 유난히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고령여성에게 민간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구직이 가장 왕성한 25세~34세의 구직과 취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5~29세

여성의 경우 4,377명이 구직에 나서 56.2%인 2,632명이 취업을 하였고 동일 연령의 남성의 경우 4,003명 가운데 55.2%인 2,218명이 취업을 하였다. 30~34세의 남성의 경우 5,003명이 구직에 나서 51.1%인 2,561명이 취업을 하였고, 반면 여성의 경우 2,781명 가운데 54.7%인 1,523명이 취업하였다.

<표 3-26> 연령별 취업현황

(단위: 명)

	계		여성팀		청장년팀		고령자팀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계	49,740	24,742	16,922	9,082	20,863	9,808	11,955	5,852
24세이하	1,908	1,109	1,355	829	553	280		
25~29세	8,380	4,850	4,377	2,632	4,003	2,218		
30~34세	7,784	4,084	2,781	1,523	5,003	2,561		
35~39세	4,219	1,991	1,786	912	2,433	1,079		
40~49세	8,375	3,772	3,837	1,887	4,538	1,885		
50~54세	4,906	2,133	1,932	904	2,970	1,228	4	1
55~59세	4,570	2,043	791	382	1,358	554	2,421	1,107
60~69세	7,638	3,874	51	13	3	3	7,584	3,858
70~79세	1,883	859	12	0	0	0	1,871	859
80세이상	77	27	0	0	2	0	75	27

학력별로 구직자를 보면 대졸이 16,339명으로 가장 많고 이를 통해서도 대졸자의 취업난을 알 수 있다. 여성 대졸자의 경우 6,959명이 구직에 나서 54.7%인 3,809명이 취업하였다. 반면 남성 대졸자의 경우 8,640명이 구직에 나서 평균보다 낮은 45.4%인 3,930명이 취업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다.

<표 3-27> 학력별 취업현황

(단위: 명)

	계		여성팀		청장년팀		고령자팀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계	49,740	24,742	16,922	9,082	20,863	9,808	11,955	5,852
중졸이하	3,228	1,638	597	329	763	403	1,868	906
고졸	17,196	8,528	5,072	2,566	6,336	3,020	5,788	2,942
전문대졸	10,993	5,622	3,560	1,973	4,224	2,072	3,209	1,577
대졸	16,339	8,037	6,959	3,809	8,640	3,930	740	298
석사이상	1,670	759	627	339	768	318	275	102
기타	314	158	107	66	132	65	75	27

(5) 급여현황

여성과 남성구직자의 평균적인 학력이 전문대 이상임을 감안할 때 급여수준은 낮다. 여성과 남성 취업자의 절반 이상의 급여수준이 100~150만원으로 낮다. 고령자의 경우 절반이상이 80~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표 3-28> 보수별 취업현황

(단위: 명)

	계		여성팀		청장년팀		고령자팀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구직자	취업자
계	49,740	24,742	16,922	9,082	20,863	9,808	11,955	5,852
80만원이하	3,700	1,965	466	240	365	214	2,869	1,511
80~100	12,098	6,367	4,663	2,478	2,284	1,234	5,151	2,655
100~150	18,272	9,306	8,611	4,639	9,338	4,532	323	135
150~200	11,730	5,431	2,434	1,328	6,037	2,670	3,259	1,433
200~300	3,181	1,322	638	346	2,245	888	298	88
300초과	759	351	110	51	594	270	55	30

##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활용실적

### 가. 사업유형(정책수단)별 실적

서울시의 자체 일자리사업을 정책수단별로 살펴보면,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창업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1. 고용지원서비스

서울시 일자리 사업 중 고용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은 리쿠르트투어,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발전센터 취업알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장애인취업알선센터,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장애인취업박람회 등이 해당된다.

리쿠르트투어의 2011년 지원금액이 799백만원으로 전년 250백만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 지원인원은 2,800명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의 2011년 지원금액은 1,3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하였고, 지원인원은 29,000명에 달해 고용지원서비스가 일자리사업 중 가장 많이 수혜인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자리플러스센터의 2011년 지원금액은 721백만원으로 전년도 시스템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45.7% 감소하였다.

<표 3-29> 2011년 고용지원서비스 부문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수단	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 인원
고용지원 서비스	여성발전센터 취업알선	16,900	22,150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349	7,700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1,357	29,000
	리쿠르트투어	799	2,800
	일자리플러스센터	721	12,000
	장애인취업알선센터	582	-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180	150
장애인취업박람회	50	300	

#### 2. 훈련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훈련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립직업전문학교,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운영이 있다. 시립직업전문학교의 2011년 지

원금액은 18,991백만원이며, 훈련을 받는 지원인원은 4,400명이다.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의 지원금액은 1,800백만원이지만 훈련을 받는 지원인원은 9,33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발전센터의 직업훈련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이 큰 것은 1년 교과과정이며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장비구입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3-30> 2011년 훈련 부문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수단	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 인원
훈련	시립직업전문학교	18,991	4,400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	1,800	9,330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운영	121	18

#### 3.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서울시 일자리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분야이다. 서울시가 자체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연계사업 가운데 서울시 예산부담분이 큰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자활근로사업 54,505백만원, 지역공동체사업 31,640백만원, 공공근로 21,075백만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14,371백만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8,333백만원 등의 순으로 2011년 지원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지원금액이 54,505백만원으로 가장 크며, 지원인원 역시 7,608명으로 가장 많다. 공공근로의 변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2011년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1,640백만원이며, 지원인원은 2,600명이다.

공공근로는 2011년 지원금액이 21,075백만원이고, 지원인원은 3,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960명, 시니어클럽 1,376명,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1,318명, 서울형노인일자리 807명으로 지원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1> 2011년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부문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수단	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54,505	7,608
	지역공동체사업	31,640	2,600
	공공근로	21,075	3,500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14,371	912
	지역형 사회직업 지원	8,333	1,960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6,336	1,318
	노숙인일자리찾기사업	5,734	600
	서울재가관리사운영	4,034	250
	관광안내소 운영	3,693	120
	아리수 품질확인제 특별서비스	3,042	7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555	174
	노숙인특별자활사업	2,542	600
	만기계량기 교체사업	2,514	56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지원	2,090	92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제현행사	2,048	71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1,620	88
	효자동사랑채 시설관리운영	1,600	2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298	78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사업	1,161	60
	서울형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159	380
	여성일자리찾기지원 프로젝트	1,157	-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1,076	27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3개소)	1,000	10
	맑은내길,DDP주변 노점 정비	1,000	14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000	300
	미래형직업재활시설	976	140
	식품안전 서포터즈	950	83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877	27
	시니어클럽	818	1,376
	프로덕션 오피스 운영	800	200
	산립병해충방제사업	790	84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727	15
	露(숙인)-露(숙인)케어 사업	700	46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690	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도우미 파견사업	650	150
	저소득 빈곤층 긴급일자리 지원사업	642	100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550	21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사업	550	72
	지리정보기반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48	4
	영세봉제업체 인력지원 사업	530	95
	잠실종합운동장 조정관리	433	22
	서울3D 영상인력개발센터 운영	370	131
	임야 내 태풍 피해목 제거 및 간벌목 활용한 목재가공품 제작 설치	362	20
	서울형노인일자리	340	807
	실버 전용극장 정춘극장 운영	326	16
	교통단속(주정차, 택시승차거부 등)	291	55
	이관기록물 정리 및 목록 전산화	222	10
도로재산DB 구축	173	7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116	19	

4. 창업지원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원 부문은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창업보육 및 교육지원, 중장년층 창업지원 프로젝트, 여성창업보육, 스마트폰 앱개발자 1인 창조기업이 있다.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는 2011년 지원금액이 19,13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지원인원은 2,160명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뿐만 아니라 사업개발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의 2011년 지원금액은 2,770백만원이며, 예산은 적지만 지원인원은 7,155명으로 창업지원 부문에서 수혜인원이 가장 많다.

<표 3-32> 2011년 창업지원 부문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수단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창업지원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19,133	2,160
	창업보육 및 교육지원	2,770	7,155
	중장년층 창업지원 프로젝트	2,000	500
	여성창업보육센터	1,000	300
	스마트폰 앱개발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291	40

5. 고용보조금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중 고용보조금 부문은 중소기업 인턴십, 무역서포터즈,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서울형 주부인턴십이 있다. 중소기업 인턴십의 2011년 지원금액은 9,641백만원이고, 지원인원은 1,600명으로 고용보조금 부문 사업 중에서 가장 많으며, 이밖에 무역서포터즈 260명,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87명이다.

<표 3-33> 2011년 고용보조금 부문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수단	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 인원
고용보조금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9,641	1,600
	무역서포터즈	1,790	260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907	87
	서울형 주부인턴십	1,159	380

## 나. 정책대상별 실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을 정책대상별로 살펴보면,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층,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일자리 사업도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고령자, 중장년층,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 1. 고령자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시니어클럽, 서울형노인일자리, 실버 전용극장 청춘극장 운영 등이 해당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2011년 지원금액은 2,349백만원이고, 지원인원은 7,700명으로 고령자 대상의 서울시 자체일자리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시니어클럽의 2011년 지원금액은 818백만원이고, 지원인원은 1,376명이다. 서울형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원금액이 340백만원인 반면, 지원인원은 807명이다.

<표 3-34> 2011년 고령자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대상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고령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349	7,700
	시니어클럽	818	1,376
	서울형노인일자리	340	807
	실버전용극장 청춘극장 운영	326	16

### 2. 여성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발전센터,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 서울형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여성일자리맞기지원 프로그램, 여성창업보육센터,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영세봉제업체 인력지원,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으로 볼 수 있다.

여성발전센터는 크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발전센터의 취업알선사업은 2011년 16,900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22,15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여성발전센터의 직업훈련은 2011년 1,800백만원의 지원금액과 9,330명의 지원인원을 나타내 여성발전센터의 두 사업은 여성 대상의 서울시 자체일자리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2011년 6,336백만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고, 지원인원은 1,318명이다. 이밖에 여성일자리맞기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2011년 약 3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2011년 여성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대상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여성	여성발전센터 취업알선	16,900	22,150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	1,800	9,330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6,336	1,318
	여성일자리맞기지원 프로젝트	1,157	
	여성창업보육센터	1,000	300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550	72
	영세봉제업체 인력지원	530	95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180	15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555	174

### 4. 저소득자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빈곤층 긴급일자리 지원이 있고 지원 금액은 642백만원이고, 지원인원은 100명이다.

<표 3-36> 2011년 저소득자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대상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저소득자	저소득 빈곤층 긴급일자리 지원	642	100

### 5. 전문인력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저소득 음악역제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지원, 잠실종합운동장 조경관리, 서울3D영상인력개발센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사업과 2010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사업 등이 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의 2011년 지원금액은 2,555백만원으로 전년 395백만원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 지원인원은 395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는 2011년 2090백만원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사 92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다. 서울3D 영상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의 지원금액은 370백만원이고, 지원인원

은 131명이다. 이밖에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92명, 잠실종합운동장 조경관리사업 22명, 임야 내 태풍 피해목 제거 및 간벌목 활용한 목재가공품 제작 설치 사업 20명,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운영 18명,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19명의 지원 인원을 나타낸다.

<표 3-37> 2011년 전문인력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대상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전문인력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555	174
	저소득 음악영재	300	
	관광안내소 운영	3,693	120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지원	2,090	92
	잠실종합운동장 조경관리	433	92
	서울3D 영상인력개발센터 운영	370	22
	임야 내 태풍 피해목 제거 및 간벌목 활용한 목재가공품 제작 설치	362	20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운영	121	18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116	19

## 7. 청년층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무역서포터즈,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프로덕션 오피스 운영, 리쿠르트투어, 남산봉수의식과 왕궁수문장 교대행사와 같은 전통문화행사,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지리정보기반 사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앱개발자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이관기록물 정리 및 목록 전산화, 도로재산DB 구축 등이 있다.

청년층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중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19,133백만원, 지원인원 2,160명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일자리 지원인원 측면에서 대학생의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리쿠르트투어 2,800명, 무역서포터즈 260명,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보조 88명,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8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8> 2011년 청년층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대상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청년층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19,133	2,160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행사	2,048	71
	무역서포터즈	1,790	260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1,620	88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298	78
	식품안전 서포터즈	950	83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907	87
	프로덕션 오피스 운영	800	200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727	15
	리쿠르트투어	799	2,800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690	45
	지리정보기반 사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48	4
	스마트폰 앱개발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291	40
	이관기록물 정리 및 목록전산화	222	10
도로재산 DB구축	173	7	

## 8. 취약계층

서울시 자체 일자리 사업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노숙인일자릿기사업, 노숙인특별자활사업, 露(숙인)-露(숙인)케어 사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노숙인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2011년 지원금액 54,505백만원과 지원인원 7,608명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고, 그 밖에 노숙인일자릿기사업 600명, 노숙인특별자활사업 600명, 露(숙인)-露(숙인)케어 사업 46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도우미 150명의 지원인원을 나타낸다.

<표 3-39> 2011년 취약계층 대상 서울시 자체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정책대상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	54,505	7,608
	노숙인일자릿기사업	5,734	600
	노숙인특별자활사업	2,542	600
	노숙인-노숙인케어 사업	700	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도우미	650	150



다. 정책수단- 정책대상별 메트릭스

<표 3-40>

	고용지원서비스	훈련	고용보조금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청년층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무역서포터즈, 대학패션이코 인턴쉽 운영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공공기관 인턴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제현행사,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프로덕션오피스 운영, 디자인 취업창업 지원, 와이파이로거 활용 현장모니터링 단 운영, 식품안전 서포터즈, 지리정보기반 사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 지방세 사해집 발간 인턴 채용,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이관기록물 정리 및 목록 전산화, 도로계산DB구축	청년창업100 프로젝트, 스마트폰 앱개발자 1인창조기업 육성지원
고령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실버 전용극장 청춘극장 운영, 시니어클럽, 서울형노인일자리	
여성	여성발전센터 취업알선,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여성발전센터 취업훈련		여성일자리맞가지원프로젝트,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사업, 영세봉제업체 인력지원 사업, 서울형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운영,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	
장애인	장애인취업알선센터, 장애인취업박람회				
저소득자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저소득층 빈곤층 긴급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숙인일자리맞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외국인 창업, 노숙인특별자활사업, 노숙인-노숙인케어 사업	
전문인력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운영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광안내소 운영, 잠실종합운동장 조경관리,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서울3D영상인력개발센터 운영,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지원, 시민녹화교실,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한 도시녹화사업, 입야 내 태풍 피해목 제거 및 간벌목 활용한 목재가공품 제작 설치, 실내 수경식물 유지관리,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문화예술 창작 공간 운영사업
국민일반	일자리플러스센터, 차지구 취업정보센터, 리쿠루트투어	시립직업전문학교	중소기업인턴십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시설모니터링 등 사회적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효자동사랑채 시설관리 운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잠실종합운동장부설 주차장 운영, 경관협정사업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형사회적기업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마을버스모니터링, 교통단속,산림병해충방제사업, 육상공원모니터링, 고객만족서비스수준향상, 서울대공원 주차서비스 요원 운영, 단축마라톤미니등반대회 및 광장행사 운영,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창업보육 및 교육지원

				정비,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개선, 맑은내,DDP주변 노점정비, 아리수 품질확인제 특별서비스, 만기계량기 교체사업,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사업, 사업체조사일시사역원채용	
중장년층					중장년층창업 지원프로젝트

## 제4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과제

### 1. 문제점

#### 1) 고용서비스

##### (1) 통합관리의 문제

서울시의 고용지원서비스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산재되어 있는 조직의 통합과 고용서비스 정보의 관리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고용서비스기관은 모두 70개에 달한다. 이들 기능을 통합관할하고 고용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이 본청에 설치되어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이다. 서울시는 예전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설치되었던 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고령자취업센터는 노인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는 자치구 노인복지센터에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직업상담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전공하는 복지사들이 취업상담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성취업센터도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취미교양 증진을 목표로 한 여성발전센터 혹은 여성인재개발원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취업지원센터가 고용지원서비스라는 독립적이고 고유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전문기능과 전문인원을 가지고 설치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 복지센터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었다. 최근 들어 취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시 자치구 본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기초단체에서도 노인복지관, 구청, 여성발전센터 등 다수의 시설이 중복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개별적으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지원시설은 상담사 3~5명의 소규모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은 모색되어야 한다.

##### (2)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역할중복

고용노동부는 서울전역에 8개의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대상의 실업자들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서비스를 받고 있다. 반면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혹은 자치구에 설치되어있는 취업시설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일반

구직자 즉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찾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는 차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이외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설들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어떠한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부족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재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2) 직업훈련

서울시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4개의 직업훈련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래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들이 지방에 있고 훈련과목이 제조업 위주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역에서 서울시 산업구조에 맞는 경공업 혹은 서비스 직종 위주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접근성면에서 훈련생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들을 제공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계좌제를 활용하여 훈련을 원하는 곳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 직업훈련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예전과 다르다. 더 나아가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의 수가 매우 많고 산업계의 최신동향에 대응하여 전문강사를 유연하게 확보하여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는 반면 서울시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시설과 강사인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어렵다.

##### 3) 일자리창출

##### (1) 사회적기업

서울시는 수많은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의 많은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1차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항구적으로 유지되어 일자리로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은 드물다.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간 약 280억을 투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를 먼저 시작한 고용노동부조차도 성공할 수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운영체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시는 2010년과 2011년 갑자기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매년 2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양적인 목표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성숙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2)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가 예산을 전담하거나 분담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공공일자리에 관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반복참여이다. 서울시는 연간 참여횟수를 2회 혹은 3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누적 참여연도에 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참여자들이 민간부문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조치는 아직은 미흡하고 참여자들의 호응도 크지 않다.

4) 일자리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 자체적인 일자리 가운데 많은 사업들이 해당 부서가 업무의 속성상 당연히 하여야 할 일들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많이 있다. 남산에서 이루어지는 남산봉수이식, 왕궁수비교대 등과 같이 서울시 관광문화 부서가 국내외 관광객과 문화보존을 위해 당연히 매년 해야 하는 행사를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적인 일자리사업이 안 것을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개선 방안

1) 고용서비스

서울시의 고용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계층별로 자치구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취업지원 조직의 통합관리가 중요하다. 고령자취업센터 혹은 여성발전센터에서 고용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인자격이 없거나 전업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한 개소만 설치되어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이들 소규모 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권역별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본청의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수평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수준의 향상, 고용정보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성과측정의 객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의 업무중복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고용서비스 실적을 보면 구직상담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므로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들 계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고용서비스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직업훈련

앞서 서울시에 소재한 많은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서울직업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이 민간이 제공하는 것과 중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시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에 재점검이 요구된다. 서울시 직업전문학교가 민간훈련기관과 차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교과목을 서울시의 산업에 적합하면서도 민간훈련기관이 공급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장기적으로 극단적인 불황기를 제외하고는 환경개선사업,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실업률이 안정되었더라도 공공근로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바람과 선출직공무원, 정부당국자의 취약계층 소득보전이라는 복지측면의 접근 때문에 공공근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반복적 참여라는 공공의존성만을 심화시키므로 고용보조금을 통한 기업고용 혹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적절하다.